

광주 첫 민간 공연예술 비평지 나왔다

광주에서 처음 지역공연예술을 다룬 비평지가 민간 주도로 나왔다. '행진: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사진〉창간호가 최근 홈페이지(actzine.kr)를 통해 공개됐다. 웹진 형식으로 나온 이 비평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을 조명하는 인터뷰와 공연 리뷰 등이 실렸다.

'행진'의 발행인 겸 편집장은 독립서점 '소녀의 서' 운영자인 임인자(43)씨가 맡았다. 창간호에는 공연 기획자·연극 평론가·다큐멘터리 감독 등 10여 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배고픈" 지역 공연예술계에서 '웬 비평지냐'는 물음에 임씨는 "자생적으로 피어나는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예술과 예술가가 점차 대상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문화정책은 관 주도로 기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연극인 출신인 임씨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2010~2016년)과 38주기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전야제 연출을 맡는 등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를 기반으로 일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극계 미투' 등 전반적인 문화현안에 대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씨는 "오랫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고향인 광주에 돌아오자 서울 중심의 한국 사회 구조에 대해 바라보게 됐다"며 "'비평의 부재'가 심각한 지역에서 비평을 생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했지만, 부족한 자원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보다는 어떻게 비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역 비평지에 대한 첫 구상은 광주문화예술인네트워크 창간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던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이 시기에 비평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12명의 참석자들은 비평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더는 추진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원고료 지원을 받으면서 잡지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담론·현장·리뷰·인터뷰·좌담·소식 등 다양한 갈래로 나눠진 비평지는 지역에서 열린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다뤘다. 아트가이드 광주 편집위원 김태균씨는 지난 연말 광주 연극배우협회 '젊은 배우 연합'이 무대에 올린 '인형의

독립서점 운영 임인자씨 주축 '행진' 창간

웹진 형식 지역예술인 인터뷰·리뷰 실어

"자생적 지역문화 만들 것"...오프라인 준비



광주 첫 공연예술비평지인 웹진 '행진: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이 나왔다. 연극 '인형의 집'.

〈극단 청춘 제공〉

집' 평론을 썼고 공연기획자 김한열씨는 인디 뮤지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연장 '부드러운 직선'의 박일남·권선제씨를 만났다. '12회 광주극장영화퀴즈대회' (조신영)와 이상호 작가의 1987년 판화작품 '구토', '반딧불은 소멸했는가' (한재섭·미술사), '광장의 기억1' (임인자), '아리랑, 삶의 노래-은평이야기' (천재현·정기학희 대표) 등 17편이 창간호를 채웠다.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예술 활성화를 꾀하는 취지에 맞게 지역 공연계 실태를 꼬집는 글도 눈에 띈다. '강진 만연극단 구강구산' 청년 연극인의 목소리를 담은 '북학왕의 사회학: 지방 청년들이 우짖는 소리' (김미란)와 제주도에도 잇따라 뮤지션이 유입되는 현상을 다룬 '제주도, 그 섬에 흐르는 음악을 위하여' (서정민갑)는 소수의 시선



임인자 발행인

으로 현 공연예술계를 바라봤다.

인터뷰와 칼럼 집필에 참여한 김한열(34)씨는 "지역의 공연 예술 종사자의 목소리를 차분히 들어보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공감대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공연 기획자들과 힘을 모아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행진'은 정식 출판물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봄께 종이매체로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될 2, 3호에는 '광주시의 문화계 보은 인사'와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새해 바람' 등을 담을 예정이다. '행진'은 매달 15일까지 주제·형식 상관 없이 기고와 공연 소식, 광고를 전자우편(survived_child@daum.net)으로 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 작은영화관 3년만에 관객 20만 돌파

고흥군은 12일 "고흥 작은 영화관(사진)이 개관 3년 만에 전국 군 단위 작은 영화관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관객수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인구(6만5700명) 대비 연간 1인당 1편 이상 영화를 관람한 셈이다.

지난 2016년 2월 88석 규모로 문을 연 고흥 작은 영화관은 이듬해 4월 53석 규모의 2관을 개관해 모두 141개의 좌석을

갖췄다. 국비 5억원 등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고흥 작은 영화관은 관람료를 6000~6500원으로 정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관람료를 4000원으로 인하한다. 문의 062-830-5800.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소춘아트팩토리'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운영기관 선정

6년간 국비 지원 받아

광주시 광산구 소춘산단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소춘아트팩토리'가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에 착안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 총 1억3500만원을 비롯해 6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는다. 소춘아트팩토리는 음악감독과 교육강사를 선발하고 3월 중 관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참여 단원을 모집한 후 매주 화·목요일에 교육할 계획이다. 또 사회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우선 선발해 악기 교육, 음악 캠프, 정기 연주회 등을 진행한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는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남구생활문화센터, 목포문화재단, 무안 희망의오케스트라 등 총 4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2-960-36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19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문화예술강좌는 광주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된 프로그램이며 초보자부터 숙련된 수강생들까지 기량에 맞는 맞춤형 강좌로 운영된다. 상반기 강좌는 3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초급반·중급반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의 발효음식과 향토음식 ▲태화 ▲전통다례 ▲민화 ▲청소년 가야금병창 등 총 12개 강좌다.

강사진은 ▲판소리: 초급반의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중급반의 방성춘(방아순) (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

자(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판소리고법: 김남중(제11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가야금병창: 이영애(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옥(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이애섭(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태화: 송광무(제21호 태화 보유자)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다례: 강예심(한국전례원 광주시 동구지역원장) ▲민화: 성혜숙(광주전통민화협회장)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방문, 전화로 가능하다. 수강료는 10만원(재료비는 별도),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창의 이야기·정신·인물...인문학적 관점서 풀어내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정중수 동화작가 '光州西倉' 펴내

광주 서구 서창동에는 극락이라는 지명과 관련된 명칭이 많다. 극락강, 극락교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금의 광산구 신가동에 극락강역이 있고 서구 유촌동 광주전변에는 극락초등학교가 자리한다.

예전에는 서창나루가 있던 곳이 극락진 이었고 근처에는 극락원이라는 여행객을 위한 숙소, 극락정이라는 시인묵객들이 한수 읊는 정자, 광주지역의 세곡을 실어 날랐던 극락창이 있었다. 이들 주변이 1961년까지는 광산군 극락면 관할에 있었던 지역이다.

이처럼 서창동 일대는 '극락'이라는 지명과 관련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산재한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다. 최근 서창 일대를 토대로 인근의 이야기와 정신, 인물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서구문화원 정인서 원장과 동화작가 정중수가 펴낸 '光州西倉'은 서창의 꿈과 노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책은 서구문화원이 인문학총서 시리즈로 펴낸 첫 권이다.

책에는 서창 출신 가운데 의로움에 몸



추, 박광조, 박대수, 박지효, 박희수, 황호 등의 의병들이 있었다. 또한 서창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로 활동한 김홍두와 양진여 양상기 부자의병장의 무덤이 있으며 김원규 김원범 형제의병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호남사람의 기반을 닦은 연산군 때의 놀재 박상과 사암 박순, 임진왜란 때는 삼봉 김세균 장군과 회재 박광옥을 비롯해 김극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의 이야기도 있다. 서창의 마지막 뱃사공으로 알려진 박호련은 마을 주민을 위해 재산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했다. 일제강점기 서창지역의 근대유학자인 현와 고광선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선비였다.

서창 주변에는 정자와 재가, 충효비와 송덕비 등도 많다. 개금산, 백마산, 송학산, 팔학산, 봉황산, 사월산 등 서구6산에는 정자와 재가, 충효비와 정려, 송덕비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다.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과 설화도 산재한다. 박광옥의 영특한 딸 '주역각시' 설화를 비롯해 박상의 고향이 설화, 김세균과 김덕령의 힘겨루기 바위, 왕조대와 견훤대, 고광선의 눈물바위와 푸른 이끼, 용이 된 잉어할머니 등은 지역 콘텐츠로 삼아도 좋을 만큼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 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